

숲 정 이

교구계간지

1년 구독료 : 10,000원
후원계좌
전북 505-13-0313012

쌍백합

연중 제 23주일 2007년 9월 9일 (다해)

강론 ...

버림과 따름



김의철 신부
(고창성당 주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간다. 군중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

을 따른 이유는 권위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치유의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구경거리나 나선듯 따라온 사람, 의심의 눈초리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 말씀에 굶주린 가난한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 가르쳤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군중에게 일침을 가하신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은 평소 보다 강도가 높고 거칠며 귀에 거슬린다.

그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예수님과 그의 관계는 친분이나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관계여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마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자기를 버리는 일은 또 얼마나 어려

운 일인가? 마지막까지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실 자기를 버리는 길이 자기를 넘어서는 길이며 참된 자기를 찾는 길이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무화되는 경지이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고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길을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번뇌는 사라지고 자유로워지며 참 기쁨과 평화가 찾아 올 것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숲머리 생각

주님,
당신의 사랑은
제 가슴 속의
심장과 같습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고,
그 사랑을 제가 멈출 수도 없으니かも.

문정섭(베드로)

성요한 크리소스톰(347-407)

윤 클레멘트 신부

그의 탁월한 웅변으로 크리소스톰-황금 입이라고 불리는 그는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불과 스무 살의 나이에 홀로 되지만, 덕행(德行)스러운 부녀(婦女)의 모범으로 아들을 신앙으로 잘 키운다.

그는 처음에는 웅변가로서의 뛰어난 경력을 쌓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열여덟이 되었을 때, 그는 안티오키아의 주교인 멜레티우스에 의하여 회심을 하고 수도자가 된다.

그는 은수자가 되어, 안티오키아 근처의 한 산으로 들어가서 홀로 하느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은수(隱修)의 생활을 택한다. 그러나 그의 약한 건강은 홀로 산에서 기도(祈禱)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그는 다시 안티오키아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그는 386년에 안티오키아에서 사제품을 받고, 398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된다.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어 이룬 그의 업적들 중에서 첫 번째의 일은 교회안의 필요하지 않은 살림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일은 자신의 말씀들과 행동으로 성직자들의 생활을 개혁한 것이었다.

그는 어느 사이에 교회에 빛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로 우뚝서 있었다. 반면에 그는 또한 그의 거룩한 행적들과 설교들을 반대하고 시기하는 많은 적들을 교회 안에서 갖게 되는데,



그 적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적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테오필리우스였는데, 그러나 테오필리우스는 죽기 전에 회심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에게 또 다른 강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황후였던 에우독시아였다. 그녀는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체의 그의 거룩한 사도적 활동들을 반대하고 있었다.

여러 차례나 거듭된 비난들이 거짓 공의회에서 그에게 날아 오고, 그는 유배를 가게 된다. 그러나 그는 많은 고통들 속에서도 그의 마음과 영혼은 사도 바오로처럼 큰 평화와 행복을 간직한다. 또한 그는 그 유배의 고통들에서도 교황은 여전히 자신의 편에서 자신의 친구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는 큰 위로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를 반대하던 적들은 그가 견뎌내던 고통들 속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까지 하였다.

그후 콘스탄티노플에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크리소스토모를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대한 하느님의 벌로써 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들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배에서 돌아오지만 황후의 은동상에 대한 반대설교로 인하여 다시 유배를 가야 했다. 거듭된 유배생활의 노고와 경비병들의 거친 행동들의 영향으로 그는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안에 묻힌다.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순교자 성월을 맞아 한국천주교회 기관지인 「경향잡지」는 ‘성지순례 사목의 새 모델’로 ‘전주교구 신앙문화유산 해설사회’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가톨릭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성지순례도 아니고 단합대회도 아니고’라는 제목 아래 “놀이로 전락한 ‘관광 성지순례’ 이대론 곤란하다”며 관광성 성지순례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또 사설에서는 ‘성지순례는 소풍이 아니다’라며, 특집기사로 “성지순례는 ‘동반자 하느님’ 깨닫는 여정”이라고 우리를 일깨운다. 「성서와 함께」 또한 성지순례는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며, ‘순례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으로 단순한 관광이나 여행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잘못된 성지순례 행태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상당수의 본당이 성지순례를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치르다보니 ‘성지순례 겸 단합대회’ 성격을 띤, 그야말로 어정쩡한 행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마침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하늘부름, 믿음과 삶의 기록들’이라는 주제로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자료전이 열리고 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전북대학교박물관은 “신앙의 깊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교리서, 성경, 천주가사 등과 십자고상, 묵주와 같은 순교자의 신앙생

활유품 등을 가까이서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귀중한 자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일일이 베껴 쓴(筆寫) 여러 종류의 천주가사(天主歌辭),

이순이 루갈다가 몸에 지녔던 십자고상, 먹물로 적은 柳恒儉(유항검)이라는 글씨가 또렷한 무덤에서 나온 접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9월에는 순교자들과 신앙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신앙생활의 자료들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자료전’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싶다.

지난 8월 11일에 시작한 전시회는 순교자 성월인 9월 내내 문을 연다.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날만 빼고는 매일 문을 연다고 한다. 물론 저녁시간에는 열리지 않는다. 미심쩍으면 미리 전화(063-270-2552, 063-270-3488~9)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참, 전북대학교 구내가 넓어서 박물관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덕진성당 쪽에 있는 옛날 정문으로 들어가서 60여 걸음을 걷다가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언뜻이 나온다. 바로 그 옆에 박물관이 있다.



한상갑(바오로)
신앙문화유산해설사회장



루갈다의 편지와 십자가

입당송 시편 119(118),137,124

주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법규는 바르나이다.
주님의 자애에 따라 주님의 종에게 행하소서.

제독서 지혜 9,13-18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주님, 주님께서는 대대로 저희에게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2독서 필레 9L-10,12-17

복음 환호송 시편 119(118),135

◎ 알렐루야.

주님의 얼굴이 주님 종 위에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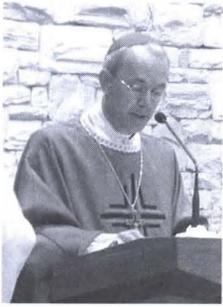
복음 루카 14,25-33

영성체송 시편 42(41),2-3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주 하느님, 제 영혼이 주님을 이토록 그리워하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 카자흐스탄 보좌주교 아타나시오 전주 교구 방문



이병호 주교의 초청으로 전주 교구를 방문한 카자흐스탄의 아타나시오 보좌주교(통역=윤양호 신부)는 지난 9월 2일(주일) 서신동 성당(주임=이태주 신부)에서 연중 제22주일 교중미사를 본당 주임신부와 공동으로 집전하였다. 아타나시오 보좌주교는 한국교회체험과 카자흐스탄 주교좌성당 성전건축 특별헌금을 위해 전주교구를 방문하였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의 씨앗이라고 말한 보좌주교는 “깨어진 빵으로 오시는 주님이 매 미사 때마다 현존하시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자”고 말했다. 현재 아타나시오 보좌주교 교구에서는 소련치하 카자흐스탄에서 희생된 100만명을 기리는 성지인 주교좌성전 건립이 진행 중이다.

보좌주교는 9월 9일까지 우전 성당, 황등 성당, 영등소라 성당, 삼천동 성당을 방문한다. |유장근 기자

●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창설자 축일미사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옛경로수녀회) 창립자 복녀 잔 주강 축일미사가 이병호 주교 집전으로 지난 8월 30일(목) 오전 11시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소재 성요셉동산 양로원(원장=계정애 수녀)에서 생활하는 노인들과 은인,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됐다.

미사 후에는 나눔 잔치와 찾아가는 라이브 음악봉사의 여흥이 이어졌다. |이원엽 기자

● 신태인 성당 도예전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은 지난 9월 2일(주일)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도예전 십자가 전시회를 가졌다. 신자들에게 십자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려는 취지로 전시된 십자가는 지난 7월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던 ‘흙 사랑 자식 사랑 어르신 캠프’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도예체험 시간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셔서 구워 온 작품들이다. |이선숙 기자

● 전주 가톨릭 신학원 2학기 개강

전주 가톨릭 신학원(원장=김선태 신부) 2학기 개강이 각 과(교리교육과, 성서교육과, 신앙연수과, 성서연수과)별로 8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있었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2학기 특별강좌도 9월 1일(토)부터 시작되었다. |오안라 기자

● 팔복동 성당 자장면 나눔 봉사단 운영

시고 기습시요. 할죽곤공글 기게기



팔복동 성당(주임=최중수 신부)은 빈철히오회를 중심으로 자장면 봉사팀을 꾸려 교구 내 본당들을 순회하며 자장면 나눔 잔치를 열고 있다. 팔복동 성당 신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 나눔 잔치는 지난 6월에 시작하여 매월 1, 2, 3주 요청이 있는 본당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축기금 마련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장면 나눔 잔치에 중점을 뒀서 각 본당 교중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자장면을 들고 성의껏 신축기금을 봉헌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동욱 기자

● 송학동 성당 고3 수험생 부모 기도모임

송학동 성당(주임=박인근 신부)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 모임이 열린다.

<p>선물세트 / 제사용품 고급생선 전문점 100번 수산 이복동(마태오) 리디아(이미숙) 227-7877, 011-652-8045</p>	<p>본 가 숨 씨 맛갈스러운 음식을 담아 본가의 넉넉함을 담아 차례상, 제례음식 전문점 진북동 숲정이 성당옆 최제원(소피아) ☎ 255-9995 / 016-629-7101</p>	<p>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산동 마태오 ☎(063)253-6075</p>	<p>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병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p>
<p>김장용 국내산 새우젓 각종 젓갈, 소금 식육, 견어물류 서 해 젓 집 동부 민물 건강원 (각종 중탕 및 과일즙) 삼천동 농협공판장 내 227-8111 / 011-675-0091 염점례(리디아)</p>	<p>자연이 준 생명 한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빅토리노) 오서진(마르가리타) 문의 : 063-253-2599</p>	<p>치질 · 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p>	<p>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마태오 아이주치장 앞</p>



다. 이 모임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 약 15명의 부모들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떼제 공동체 기도와 미사로 진행이 된다. | 조은아 기자

상원 사회사목국장 신부의 미사로 시작된 이번 학교는 호스피스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김혜자 수녀(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장)를 비롯한 15여명의 강사진이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 호스피스 대상자에 대한 사전지식과 관리방법, 호스피스 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생명 윤리 등 알찬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강의뿐 아니라 8시간 정도의 실습을 거치고 평가하는 시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김동욱 기자

● **나운 2동 성당 가족 피정**

나운 2동 성당(주임=이덕근 신부)은 지난 9월 2일(주일) 첫 영성체 가정교리를 받는 각 가정을 대상으로 일일 가족피정을 가졌다. 가족관계의 개선과 가정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가정교리의 일환으로 열린 가족피정은 '하느님 안에 행복한 우리 가족'을 주제로 말씀의 전례, 가족사진 만들기, 가족발 씻김 예식, 파스카 만찬, 촛불예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피정을 통해 가정을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교회로 바꾸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오인라 기자



● **서신동 성당 성령묵상회**

서신동 성당(주임=이태주 신부)은 지난 8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동안 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도움으로 성령묵상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령묵상회는 견진성사를 받을 신자들이 참석하여 영적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 유장근 기자

● **남원 쌍교동 성당 순교자 성월 성지순례**

남원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신부)은 지난 9월 2일(주일)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충남 청양 다락골 줄무덤 성지와 보령 갈매꽃 성지로 200여명의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 강인식 기자



● **교구 본당 직원 금강산 하계연수회**

교구 설정 70주년 일환으로 본당을 위해 수고하는 사무장, 사무원, 관리장, 주방원들의 사기진작과 유대강화는 물론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본당 직원 하계연수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있었다. 본당 직원들은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체감하며 한민족 한겨레로서 통일이라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 기수도 기자

● **만경 성당 세례식**

지난 9월 2일(주일) 만경 성당(주임=백수현 신부)은 6개월 동안 교리공부를 마치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는 8명에 대한 세례식이 있었고, 9월에 영명축일을 맞은 교형자매들을 축하해 주었다. 새로이 한 가족이 된 8명의 세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모실 수 있는 양형영성체의 체험을 주어 눈길을 끌었다. | 최진순 기자

● **제 13기 자원봉사자 학교 개강**

제13기 자원봉사자 학교가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주간 전동성당 교육관에서 열린다. 3일 장

<p>강성호 피부과</p> <p>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p> <p>☎(063)255-8700</p> <p>롯데백화점 옆</p>	<p>제주관광안내</p> <p>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관광 및 성지를 안내 차량 · 호텔 · 펜션 예약 가능</p> <p>☎(064)758-6476 H·P 010-4566-6476</p>	<p>수액 · 수세미즙</p> <p>참살이 수세미 농원</p> <p>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유기자 재배(온가에서 판매) 박미나(세실리아)</p> <p>063)255-8090, 010-6536-1117</p>	<p>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 남원지부</p> <p>온살이 요가원</p> <p>원장 : 안미선(아가다)</p> <p>100M 위치 : 남원시 도통동 죽량APT ⇄ 시청</p> <p>문의 : 635-6575, 016-609-1464</p>
<p>군산 햇님토이 완구점</p> <p>확장이전 개업 / 나운동 KIT전신전화국앞</p> <p>모터 전동차, 스텝2, 리틀타이스 유치원 · 놀이방 완구 전문취급점</p> <p>완구 · 교재 도소매</p> <p>박한웅(요한) 김현자(수산나)</p> <p>문의 : 471-1853, 468-4819</p>	<p>의료법인 영 의료재단(행방 · 양방 협진)</p> <p>익산효양병원</p> <p>저렴한 요양비로 어르신들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p> <p>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p> <p>☎ 016-335-8175</p> <p>상담전화 : (063)858-9998</p> <p>주소 : 익산시 모현동1가 245-5</p>	<p>호성냉동</p> <p>· 에어콘 ·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장고</p> <p>· 에어커터 · 에어케텐 · 버섯재배 설치</p> <p>양태수(요왕) · 김경남(마리아)</p> <p>☎(063)242-4959 H·P 011-659-8085</p>	<p>AIG 생명보험</p> <p>믿고 신뢰하시면</p> <p>최선의 보답을 해드립니다.</p> <p>이완기(빈첸시오)</p> <p>☎ 상담 : 019-9770-2468 212-9339</p>

진정한 하나 됨으로

♣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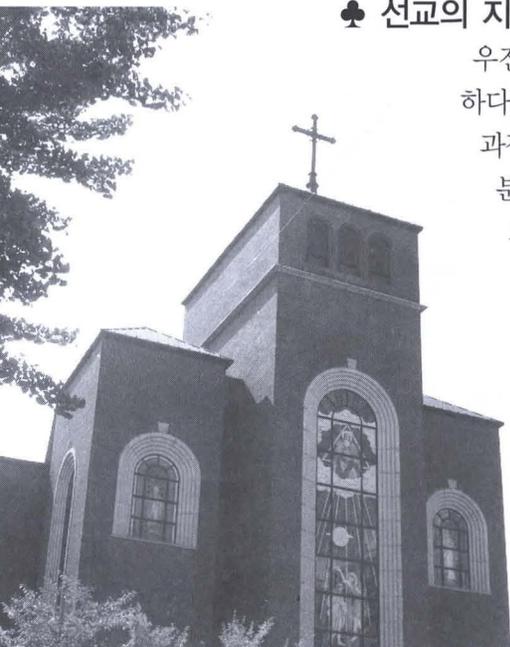
전주 우전 성당(완산구 효자동 1가 406)은 도시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황금 어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파트의 특성상 주민들의 잦은 이사와 떠나없이 바쁜 일상으로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박종상 주임신부는 무관심의 성벽에 둘러싸여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신자들의 급선무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신부님은 “객지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 파고들어야.”며 삶의 현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다. 사목의 목표를 ‘서로 알고 지내는 본당 공동체’에 두고 있는 것도 신자들끼리 서로에 대한 무관심의 벽을 깨고 진정한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작년에 실시한 사목회장 선출 방식을 모든 신자들이 무작위로 후보자 이름을 써서 뽑은 것도 서로 알고 지내는 공동체 실현의 한 방편이었다.

♣ 자상함과 섬세함으로 공동체를 아우르는 여성 사목회장

우전 성당은 작년 11월 신자들의 의중을 모아서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목회장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통상적 관념을 깨고 여성 사목회장이 뽑히게 되었다.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주관하고 여성부장과 구역부장, 부회장을 거치며 성실히 봉사해온 권정희(제노베파, 61) 회장. 신자들은 기꺼이 여성 사목회장을 선택하여 신앙의 용기와 정열로 공동체를 끌어가는 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권 회장은 여성 특유의 자상함과 섬세함으로 본당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성전 밖의 수녀원을 성전 안으로 옮기고 조명등을 교체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와 유아방을 재정비하는 등 열심을 다하고 있다. 전직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강인한 추진력을 발휘하며 맡겨진 일에 소임을 다하는 권 회장은 한편으로 신자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공동체가 하나 되는 화합의 길로 이끌고 있다.

♣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교회

우전 성당은 금년 들어 예비신자가 113명에 이르며 선교의 열기가 충만하다. 인터넷 선교 카페를 운영하며 늘 선교를 꿈꾼다는 변호석 선교분과장은 “특별한 선교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호감을 갖고 성당에 오는 분들을 잘 이끌어 주고 낯선 얼굴이 보이면 관심을 갖고 접근하여 입교시키는 일에 충실할뿐이라”며 겸손해한다. 매월 한 차례씩 복음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신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본당에는 선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또 하나의 단체가 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전하는 애령회이다. 지난 2004년 10월 새 단장한 본당 연도실은 고인들과 신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수로이다. 초상이 나면 꾸리아에서는 연도가 끊이지 않도록 빠르게 별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연도를 하도록 안내하고 애령회 회원들은 장례일체를 도맡아 봉사함으로써 유족들이 신앙의 향기 안에서 고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분가해



한 선교의 열매 거둬



사진은 노인 위안잔치(위)와 애령회 연도(아래)

나간 우림본당도 연도실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장례일체와 장례음식까지 실비로 제공하는 애령회의 활동은 늘 장지까지 동행하는 본당신부님의 자상함과 함께 간접 선교에 큰 몫을 해 낸다.

♣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는 공동체

우전 성당은 지난 5년간 적지 않은 성탄절 구유예물과 선물을 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며 사랑실천에 앞장 서 왔다. 빈첸시오회는 매월 물품판매 이익금으로 불우이웃에게 반찬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목회에서든 명절 때 마다 은퇴신부님을 찾아 뵈므로써 늘 이웃에 대한 따뜻한 눈길을 열

어두고 있다. 또한 환절기에는 본당 신자인 송하숙 내과 원장이 어르신들에게 실비로 독감예방접종을 해드린다. 이 일이 몇 년째 지속되다 보니 이젠 인근지역에 소문이 나 매년 600~700명의 신자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교구 곳곳에서 활동하는 역량있는 일꾼들

본당 공동체는 우림 성당을 분가시키면서 일꾼이 부족하여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수의 신자들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며 그리스도 신앙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본당에는 성인 복사를 비롯하여 교구의 사목국, 홍보국, 평신도 협의회 등에서 봉사하는 역량 있는 일꾼들이 든든히 포진하고 있다. 또한 전·현직 교사 신자들의 활동도 두드러지는 데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기쁘게 시간을 봉헌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솔솔 풍겨 나온다.

♣ 성전 채우기 운동 적극 전개

지난 1988년 1월 효자동, 복자 성당에서 분리되어 신자 수 717명의 작은 공동체로 시작한 우전 성당. 20여년이 지난 현재 3778명(14구역 48개 반)의 큰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신자들이 많아지면 오붓한 가족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기 십상이다. 이로 인해 본당 공동체는 나눔과 화합의 장을 자주 만들며 신자들의 일치를 위해 힘써 왔다. 또한 선교의 전진기지인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신부님과 수녀님은 반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박 신부님은 큰 성전이 빈자리가 많을 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1300명이 들어가는 큰 성전을 지어놓고 자리가 많이 빈다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박 신부님. 요즈음 본당은 ‘성전 채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 집을 가득 차게 하여라.”(루카 14,24)는 예수님의 명령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안고 실천하는 본당 공동체가 장차 성전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거둬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 오안라·신현숙 기자, 사진 : 김영수 기자

반세기 동안 한결같은 성모님 사랑 '활활'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에게 하느님의 복음이 전해진다. 가톨릭을 통해 신앙의 길을 걷고자 마음먹고, 긴 예비자 교리기간을 거쳐 세례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된다. 세례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권유받는 일이 무엇일까? 아마도 레지오 입단이 아닐까 싶다. 레지오 활동을 통해 평일미사와 묵주기도, 여러 봉사 및 선교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다보면 어느새 신앙 안에서 훌쩍 성장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전주교구에는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가 있다. 이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는 지난달 새 교구청 4층 강당에서 600차 월례회의를 가졌다. 한달에 한번 열리는 회의이니

있는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들의 활동여하에 따라 많은 숨어있는 행동단원들이 고개를 든다면 전주교구의 레지오 마리아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강상근 레지아 단장은 “각자가 속한 본당에서 가장 낮은 일부터 레지오 단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본당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기도생활과 어린양·잃은양 찾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신자들을 깨어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덧붙여서 “레지오 정신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활동하는 행동단원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단원들이 먼저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이어서 활동



600차가 되자면 장장 5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전주교구의 레지오 마리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시간은 거슬러 1955년까지 올라가야 한다. 1955년 5월 5일 전동 성당에서 10명의 단원이 모여 ‘치명자의 모후 브레시디움’이 창단되었다. 이어 같은 해 7월25일 ‘매괴의 모후 브레시디움’이 첫 여성 브레시디움으로 창단되었다. 이때만 해도 전주교구 브레시디움은 광주대교구 꾸리아 소속이었다. 1957년 7월 17일에야 비로소 전동 성당에서 꾸리아 창단식을 가졌다. 3년 뒤인 1960년 9월18일 ‘파티마의 모후 꾸리아’는 꼬미시움으로 승격되었다. 첫 브레시디움이 창단된 지 5년만에 꼬미시움까지 달려왔으니 그 걸음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바쁜 걸음이었을 지를 상상해보자. 이 꼬미시움이 1986년 5월1일 드디어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로 승격되는 경사를 맞이하였으며 2005년 5월에는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도 치렀다.

현재 전주교구에서 활동하는 행동단원은 1만 5303명이다. 이는 1만 8000여명에 이르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회복되고

하게 되면 그 활동의 결과로서 브레시디움이 활성화 되고 이는 본당을 활성화 시키게 된다면서 레지오 단원들이 바로 이 중요한 임무를 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강상근 레지아 단장은 몇 년 전부터 소공동체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교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에 대해 “레지오 활동도 힘든데 소공동체 모임을 주회함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레지오가 불평하는 것처럼 말하고 레지오가 소공동체 모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동기는 먼저 레지오 마리아 간부들이 여러 가지 외적, 내적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고 양적인 증가에 만족하고 질적 향상에 대한 방향과 대책 수립에 무관심했던 결과라고 반성하고 싶으면서, 이 소공동체 모임과 레지오는 결코 따로 떨어져서 가야하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가야 하는 공생의 관계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레지오 단원들이 소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취재 : 김동욱 기자

전시관에 들어서면 가장 중심부에 루갈다의 십자가가 첫 눈에 띕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십자가 아래 글)

전시 동안만은 “이곳 박물관도 성지로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루갈다가 4년 동안 행랑채에서 요한과 동정을 지킬 때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지냈음을 친정어머니께 보낸 옥중 편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거의 열 번이나 무너질 뻔하였사오나 십자가의 성혈공로로 유감을 물리쳤나이다...” (피묻은 쌍백합 중에서)

옛 여인들은 수절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가슴에 비수(칼)를 품었습니다. 전시된 십자가는 초남리 가매장 터에서 113년 동안 묻혀 있다가 치명자산으로 옮길 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기막힌 섭리입니다.

‘하느님의 종’ 루갈다 요한 동정부부는 시복시성 되는 날 ‘모든 순교자 중에 우뚝 솟은 진주’ (다블뤼 주교 비망록에서) 로 온 세상에 빛날 것입니다.

전시장 진열대 안에는 루갈다의 옥중편지 필사본, 조선 최초의 성서, 주교요지 교리서 등 많은 서적과 무덤 십자가, 목주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초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실의(天主實義) 上下권을 볼 수 있어 저는 윈을 풀었습니다.

많은 신자, 신심단체, 가족들에게 권합니다.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순교자 성월이 끝나는 날 9월 30일까지 전시)

9월의 순교자 성월, 순교자들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빌면서...

초남이 성지 김환철(스테파노) 신부

전 교구민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

제 7회 요한루갈다제, 제 12회 성체현양대회, 어린이양 잔치

◆ 성체현양대회 : 9월 29일(토) 오전 10시 30분

◆ 가톨릭예술제

1)상설전시-미술전시회(가톨릭미술가회), 교구역사사진전(쌍백합),
교구역사영상전(교구 C.V.J)

2)성가합창제 : 9월 29일(토) 오후 6시 30분

3)가톨릭예술인의 밤 : 9월 30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어린이양잔치 : 9월 30일(주일)

1)성경암송대회 2)백일장 3)사생대회

◆ 청년생활성가 경연대회

◆ 창세기 공연 및 젊은이 페스티벌 : 9월 29일(토) 오후 3시

※음식나눔잔치

※선물증정 : 요한루갈다 로고부착 목주(전신자), 요한루갈다 티셔츠(참가학생)

일시 : 2007년 9월 29일(토)~30일(주일)

장소 : 새 교구청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주관 : 천주교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장 일정

- 주교 Communion 모임
9월 10일(월)~11일(화)
- 광주신학교 이사주교, 교수 간담회
9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 교구사제 월례묵상회
9월 13일(목)
- 교구사제 월례묵상회 성 김대건상 축복식
9월 13일(목) 나바위
- 사목방문
9월 14일(금) 용안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9월 10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M.B.W 콘비벤자
9월 10일(월) 오후 7시 센터
- 교구 사회복지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9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수녀연합회 정기총회
9월 10일(월)~11일(화) 나바위
- 재무평의회
9월 12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교구사제 월례묵상회
9월 13일(목) 오전 10시 나바위
- 가정방문실 미사
9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
- 익산 하나회 미사
9월 16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전주교구 ME협의회 25주년기념
ME지구 및 본당 임원 워크숍
10월 3일(수) 오전 9시 30분~5시
장소 : 새교구청 4층 강당
문의 : ME대표 016-612-6223 이진래
011-9641-6223 김기순
016-654-2439 김정민 신부

• ME협의회 제7차 쇄신주말
10월 20일(토)~21일(주일)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문의 : 011-657-6538 채왕석
011-9644-6538 박호선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단원 교육
9월 10일(월) 전동
- 여성연합회 연수
9월 10일(월)~11일(화) 천호
- 제 13기 자원봉사자 학교
9월 10일(월) 오후 1시 전동성당 교육관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2단계
9월 11일(화) 오후 2시 삼천동
- 천호피정
9월 11일(화) 오전 10시
- 교육국 봉사자 연수
9월 15일(토)~16일(주일)
- 고3, 대학생, 일반 예신 월모임
9월 16일(주일) 오전 10시 성소국

• 제 2차 신학원 졸업생 피정
일시 : 9.29(토) 15:00-30(일) 14:00
장소 : 해일리 피정의 집
주제 : 시편과 함께하는 성경묵상
대상 : 교리교사(정,준) 말씀의 봉사자
(1차피정에 참석안하신 분)
지도 : 이정석 신부
피정비 : 25,000원
접수 : 9월 21일 16:00까지 행정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소성무일도, 미사도구,
세면도구, 새성경(시편)

제 5회 테마영상(ucc) 공모

주제 : 선교 · 복음 · 봉사
부문 : 영상
대상 : 가톨릭 신자
기간 : 9월 17일(월)~21일(금) 18시까지
입상작 시상 및 현장심사 및
시상식 개최 : 10월 예정
접수처 : 전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285-0041

▶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9월 1일 현재) ◀

- 100% 납부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리,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오수, 조촌동, 여산, 서학동, 순창, 나운 2동
- 90% 이상 납부 본당 : 쌍교동, 신평, 중앙, 수류, 원평, 숲정이, 나운동, 고산, 신탄인, 용안, 신동, 서신동, 시기동, 월명동, 오룡동, 영등동, 삼천동, 지곡, 복자
- 80% 이상 납부 본당 : 우아동, 팔복, 우림, 무주, 인후동, 우전, 덕진, 임실, 함열, 팔마 노송동, 금마, 솔내, 용진, 주현동, 송천동
- 70% 이상 납부 본당 : 소룡동, 봉동, 효자동, 요촌, 부안, 호성동, 연지동, 미룡동, 부송동, 도룡동
- 60% 이상 납부본한 본당: 화산동, 송학동, 아중, 모현동, 평화동, 창인동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8/26~9/1)

김재영(로사) 100,000

축 은 경

박찬길(미카엘)주임 신부님
사제수품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일시 : 9월 15일(토)

축하미사 : 오전 10시 30분 인후동 성당

※ 미사후 축하식, 축하연

인후동 신자 일동

성숙한 신앙을 위한 독서감상문 대회
대상도시:송교자의 나라(연도원저, 에담출판사)
응모기간:10월 15일까지(마감일 소인 유요)
접수처:(우120-837)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길 22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성숙한 신앙을 위한 독서감상문 대회 담당자 앞
주최: 평화방송, 평화신문,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화방송홈페이지 이벤트 참조

삼성산 성지 2박3일 치유대피정
일시 : 9월 14일 오후 6시~16일 오후 3시
장소 : 삼성산 성지 대성전(무료 / 식사제공)
미사 : 송광섭(베드로) 신부
02-874-6346
문의 : 락노철(모세 바울) 회장
011-721-7808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 9월 15일(토) 오후 4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주제 :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의 역사
장소 : 예수회 관구본부
문의 : 02-719-1803,
011-9728-1803
대상 : 고등학생 이상

2008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수시 2학기 모집
인원 : 사회복지학부 / 간호학과 66명
(정원외 6명 포함)
원서접수 : 9월 10일(월)~20일(목) 17시
문의 : 043)270-0100~1
<http://www.kkot.ac.kr>

2008학번(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인도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전문대학'
·수시2학기 2차 : 2007. 9. 7(금)~9. 28(금)
·모집학과 안내 : <http://www.csangji.ac.kr> 참조
·입시문의 : 대외협력처 054)851-3021~2
FAX)054)851-3009

서울 성가소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 063-223-3822

젊은이 피정
일시 : 9월 15일(토) 오후 5시~
16일(주일) 오후 5시
주제 : 다시 만나는 나
장소 : 수녀원 본원(화성시 왕림소제)
회비 : 2만원
문의 : 010-3940-3635 천주섭리수녀회

김·정·고·부 지구 본당 소식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김 의철
 유지원: 564-3529 수녀원: 564-6686 서목회장: 이면우
 F A X: 563-1782

- ◎ 9월은 순교자 성월: 순교자 믿음을 본받읍시다.
- ◎ 오늘은 북한 돕기2차 헌금 있습니다.
 ※ 개인 및 제 단체후원 받습니다. - 사무실
- 1. 기록한 독서(바로로 팀 일 오전9시) 4권 마침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 2. 예비신자인도에 적극 동참합니다. : 환영식 10월 2일(화) 후7시30분
 ※ 예비신자 카드를 제대 앞 봉헌함에 넣어주세요.
- 3. 순교자 현양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13일(목) 후8시
- 4. 한가위(추석) 합동위령미사: 접수 - 사무실
- 5. 차주모임: 애령회 - 교중미사 후
- 6. 감사헌금: 김희영 5만원, 오구선 2만원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78,000원 ■ 교무금: 2,200,000원

만 경

주임신부: 548-9995 사무실: 548-9911 주임신부: 백수현
 F A X: 548-9911 서목회장: 최병순

- ◎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것이!(시편133,1)
- ◎ 성가연습이 매주일 전 9시30분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 ◎ 지난주 세례식에 수고해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1. 금주: 사목회-교중미사 후
- 2. 차주: 제대회, 차량운영 위원회-교중미사 후
- 3. 사제월 레묵상회: 13일(목) 나바위
- 4. 특별헌금: 강순석 100만, 한우순 4만 ※ 감사합니다.
- 5. 한가위 합동위령미사(25일): 예물 봉헌 접수 받습니다.
- 6. 금주: 해설-양희정, 독서-조수근, 김영자
- 7. 차주: 해설-양해진, 독서-임태섭, 강정윤
 ■ 지난주 봉헌금: 520,100원 ■ 교무금: 110,000원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김원중
 유지원: 584-1004 수녀원: 584-1332 서목회장: 조건규
 F A X: 581-1334

- ◎ 새 교구청사 신축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 1.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교리->주일 전9시
- 2. 추석 합동위령미사 예물 접수: 사무실
- 3. 자모회: 15일(토)후3시30분
- 4. 축기 결혼: 신랑-양승현(로무양또), 신부-이선옥->오늘 후1시
- 5. 성모동산 헌금: 김홍순(5만)
- 6. 신축헌금: 백정희(50만) 7. 감사헌금: 백정희(10만), 익명(20만)
- 8. 신축헌금 신입누계: 225,698,000원, 입금누계-219,721,270원
- 9. 금주미사 ① 금주-등용 전6시, 창북 후7시30분
 ② 차주-독지 전6시, 마포 후7시30분 10. 금주청소: 6구역
 ■ 지난주 봉헌금: 1,856,350원 ■ 교무금: 665,000원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4-5652 주임신부: 원종훈
 서목회장: 손영일
 F A X: 544-5654

- ◎ 2007년은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완납의 해입니다.
- 1. 2006년도 교무금 미납금 납부 바랍니다.
- 2. 추석합동위령미사 미사지향 접수 받습니다.
- 3. 구장리 공소미사는 다음달부터 있습니다.
- 4. 9월 13일 목요일 성체강복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402,550원 ■ 교무금: 400,000원
 ■ 미사참례자 수: 152명

시기동

주임신부: 538-0092 사무실: 538-0091 주임신부: 경규봉
 유지원: 532-5777 수녀원: 538-0093 서목회장: 이세용
 F A X: 538-0094 홈페이지: http://www.sgdong.or.kr

- ◎ 가톨릭센터 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 1. 추석 합동위령미사 예물 접수받습니다. 사무실
- 2. 예비교우 모집: 입교식(9/30 일 교중미사중)
 ※ 많은 인도 부탁드립니다.
- 3. 금주모임: 재속프란치스코회, 제대봉사회(9/9 일), 나래회(9/12 수)
- 4. 감사헌금: 이귀옥 10만, 이영자 5만, 이판례 2만원
 ■ 지난주 봉헌금: 1,537,500원 ■ 교무금: 2,132,000원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749,000원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이봉석
 서목회장: 박경우
 F A X: 581-0241

- ◎ 우리 본당은 기도하는 공동체/섬기는 공동체/나누는 공동체!!!
-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지향 접수 받습니다(사무실)
- 1. 가정방문기도: 신부-12일(오전), 진서-12일(오후)
 후촌-15일(오전), 보안면-15일(오후)
- 2. 환자봉성체: 9월14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 3. 9월16일 본당일남: 행사와 영세식이 있습니다(축하합니다)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시기동성당

신 품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이 동
 F A X: 544-2281 수녀원: 544-2273 서목회장: 임석택

- ◎ 오늘은 지구 내 어려운 본당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1. 금주모임: 울뜨레야
- 2. 차주모임: 연령회, 자모회
- 3.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25일 10시, 예물은 23일주일까지
 ※ 사무실에 접수바람.
- 4. 세례: 16일 교중 미사중 5명, 특별교리: 11일~14일 저녁8시
 ※ 15일 면담 및 전례연습
- 5. 감사헌금: 김금례-오만원, 한연분-삼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85,050원 ■ 교무금: 2,102,000원

신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김봉술
 F A X: 571-8208 수녀원: 571-8203 서목회장: 박찬주

- ◎ 은혜로운 봉헌, 아름다운 기어-차량구입 및 성전보수를 위하여
 ※ 봉헌계좌-신협 07096-12-001138 천주교유지재단
- 1. 공소미사: 태인-12일(수), 동막-13일(목) 후7시30분
- 2.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9월 25일(화) 전10시30분
 ※ 예물봉헌은 23일(주일)까지 사무실에 봉헌바랍니다.
- 3. 주일학교 차량봉사자: 9월 15일(주일)-김호연, 이익규
- 4. 금주전례: 해설-정귀자, 독서-김진권, 김명자, 봉헌-송원석부부
- 5. 차주전례: 해설-권오금, 독서-오영화, 김준희, 봉헌-신상헌부부
 ■ 지난주 봉헌금: 1,063,000원 ■ 교무금: 900,0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8-0532 사무실: 538-0531 주임신부: 박장신
 F A X: 538-0534 수녀원: 538-0533 서목회장: 진종철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jdsd.or.kr

-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 ◎ 소 공동체 운동: 반모임 활성화에 전신자가 참여합니다.
- ◎ 가톨릭센터 신축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 1. 금주모임: 성심회, 자모회
- 2. 병자봉성체: 9월 13일(목) 전9시
- 3. 한가위 명절 합동 위령미사 예물접수: 사무실
- 4. 교구설정 70주년 축제 한마당: 9월 29일(토)~30일(주일)
 ※ 제 12회 성체현양대회, 제7회 요한루갈다제
 ■ 지난주 봉헌금: 1,139,200원 ■ 교무금: 405,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박종진
 유지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서목회장: 구사복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vchon.org

- 1. 오늘: 예비신자 성지순례.
 ※ 장소-나바위, 여산, 천호성지 오전8:30출발
- 2. 교중미사 후: 마르타회, 재속삼회
- 3. 금주모임 ① 12일(수) 대건회, 엠마우스
 ② 15일(토) 자모회, 봉월공소미사
- 4. 성시간: 13일 대성당에서 미사 봉헌 후 이어짐
- 5. 추석 미사예물 접수를 받습니다.
- 6. 감사헌금: 익명 8만
- 7. 신축헌금: 고순길 5만
 ■ 지난주 봉헌금: 1,603,900원 ■ 교무금: 2,355,0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정영현
 유지원: 543-4236 수녀원: 545-2843 서목회장: 임정환

- ◎ 매월 셋째주(다음주9/16)는 성소후원회비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 ◎ 그동안본당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다른곳으로 전출가시는
 ※ 이 예로니모 수녀님께 감사드리며 영육간 항상 건강하십시오.
 ※ 새로부임하시는 김젤마수녀님 환영합니다.
- ◎ 주일학교교리(토 후2시30분)와 어린이미사(토 후4시)에
 1. 금주 ① 사목회(9/12 수) ② 성체강복(9/13목) ③ 환자봉성체(9/14 금)
 ④ 성모회(교중미사 후) ⑤ 대건안드레아회(교중미사 후)
 다음주: 세례식(교중미사중) 모니카회, 아브라함회-교중미사 후
 3. 순환자은행 봉사자: 금주-박희관(프란치스코) 차주-박영민(요셉)
 4. 금주전례: 해설-김선애, 독서-김중은, 강정실 봉헌-조두석가족
 5. 성당청소: 1,2구역
 ■ 지난주 봉헌금: 509,600원 ■ 교무금: 355,000원

- 4. 모임: 오늘 미사 후-성모회, 다음주 미사후-성우회, 제대회
- 5. 전례 ① 금주-최준식, 김기완, 김미옥, 조팔남부부
 ② 차주-고재일, 조팔남, 이종미, 신문근부부
- 6. 감사헌금: 윤도순 2만원, 정복심, 이정근 3만원
 ■ 지난주 봉헌금: 532,000원 ■ 교무금: 550,000원

▶ 사진묵상



사진=유백영(가브리엘·가톨릭사진가회)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 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곁에 낮은 신은 하나도 없었다.

(신명 32,10-12)

교황청에서 보낸 감사 서한

존경하는 이병호 주교님.

교황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는 전주교구가 교황대사관을 통해 교황청에 보내 주신 여러 명목의 헌금을 감사하게 잘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베드로 헌금으로 34,435,510원, 교회법 1271조(교황청이 세계 여러 지역의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조성하는 기금)에 의한 헌금 21,000,000원, 그리고 교회법 791조(교황청 선교 기금)에 따른 헌금 21,000,000입니다. 첫 두 헌금은 교황청 국무성 회지에 소개될 것입니다.

교황성하께서는 전주교구의 주교님과 성직자 수도자, 교우 여러분들이 사도좌의 직무 수행을 위해 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교황성하께서는 헌금이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일인데, 주교님의 교구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도좌와의 일치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런 기여를 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주교님과 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교우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원하며 성하께서는 사도적 강복을 주십니다.

저로서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2007년 8월 18일 교황청 국무성 페르난도 필로니 대주교